http://dx.doi.org/10.35704/YJH.57.7

기호자본주의 시대 사회적 질병으로서의 정신질환에 대한 분석과 이야기를 통한 사회적 치료의 가능성 고찰

- '해석자들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은경*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기호자본주의 시대의 인지노동과 정신질환의 발생조건
Ⅲ.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경쟁구조가 자아내는 우울증적 구조
Ⅳ. 사회적 질환의 치유로서의 '이야기'와 '해석자들의 공동체'
Ⅴ. 이야기를 통한 의미 회복 - '종교적인 것'(the religious)의 창출
Ⅵ. 나가는 말

|국문초록|

인간은 본래 다양한 기호들에 의미를 부여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적 존재, 즉 '스토리텔링 애니멀'이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것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고, 디지털 기호화된 정보가 넘쳐나는 기호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오늘날의 노동은 추상적 기호의 생산과 교환을 통해 자본을 창출하는 '인지 노동'으로 대체되었다. 가상 디지털 네트워크 위에서 이루어지는 인지노동은 우리의 감정에너지를 직접으로 착취하고, 무한경쟁과

* 감리교신학대학교 객원교수

승자독식의 체제는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기면서 일로부터의 소외보다는 '경쟁으로부터의 도태'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구조는 우리 모두를 '결국 무능한 패자'로 만들어 버리지만,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경쟁의 구조 속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쌓은 절망과 그에 대한 분노의 출구를 찾는다. 그러는 사이 과부하에 걸린 우리의 신경체계는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했고, 결국 양극성 장애, 조현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신건강은 단지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과 상담을 통해 개인의 고장 나고 비뚤어진 내면을 바로 잡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면의 뒤틀림과 왜곡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사회적 구조로부터 야기된 정신적 질병들을 개인의 내면에 대한 치유로만 극복할 수 있을까? 승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경쟁주의적 문화의 이야기 대신, 그 실패와 아픔을 부여잡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이야기의 구성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치유와 해방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정신질환의 문제를 기호자본주의 혹은 인지자본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살펴보면서 '이야기'와 해방의 해석학, 즉 '해석자들의 공동체'를 통해 기호자본주의 시대 '인지노동자들'(cognitariats)의 불안정한 정신건강과 우울증적 증세의 치유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주제어 : 기호자본주의, 정신질환, 이야기, 해석자들의 공동체, 인지노동자

Ⅰ. 들어가는 말

오늘날 정신질환은 여전히 소수자의 문제이다. 인구대비 수적으로 소수자란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외면 받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래서 소수자(minority)란, 특정 집단에서 수적으로 소수인 이들을 가리키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적으로는 다수이지만, 그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억압, 배제, 차별 혹은 거절당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개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여성도 수적으로 소수자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가부장적 사회구조 하에서 비존재, 즉 '비인간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에서 '소수자'이다.

오늘날의 현실에서 정신질환자들은 전체 인구대비로는 아직 소수이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며, 점점 더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은 은폐되고, 그 원인이 개인의 유전적 요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혹은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환원되면서, 이들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는 점에서 역시 소수자다. 그동안 사회는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꾀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처방, 상담, 격리 등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처리해왔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양극성 장애(조울증), 조현병(정신분열), 우울증, 다중인격장애 등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인간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질문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산업자본주의로부터 금융자본주의, 소비자본주의를 거쳐 디지털 기호를 교환하며 자본을 창출하는 '기호자본주의'로 들어선 지금, 우리 시대의 노동은 공장에 출근하는 대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네트워크에 접속

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노동자들은 '인지노동자'(cognitive worker)라고 불린다. 이와 같이 거의 모든 것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오늘날의 인지자본주의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정서적 메마름과 인간다움의 상실마저도 '소비와 구매력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는 도착적 메시지가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된다.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만들어주는 행위)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는 '행복'마저도 소비와 욕망의 대상으로 추동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정신질환'과 '중독'의 문제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신질환은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간주된 채 개별적인 처방과 치유가 진행되고 있을 뿐,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최근의 진화심리학적 연구나 인지자본주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증상들은 두뇌의 구조적 원인과 더불어 사회구조의 신경적 네트워크화로 인해 가중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수렵과 채집사회에 최적화된 인간의 두뇌 배선은 현대의 가상 디지털 네트워크 위에서 노동하는 인지노동자들에게 우울증과 중독의 문제를 일으킬 신경생리학적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1] 또한 기호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전 시대처럼 노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삶 자체가 노동에 편입되어 있어서 인지노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는 성향이 짙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시스템은 인지노동자들에게 일로부터의 소외보다는 '경쟁으로부터의

1) Gary Marcus, *Kluge: The Haphazard Evolution of the Human Mind*, Boston: Mariner Books, 2008, p.4.

도태'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용직, 비정규직의 고용체계 속에서 낙오자 또는 무능한 자가 되었다는 '심리적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겪는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존재론적인 질병이다. 경쟁사회에서 '루저(looser)가 된다'는 것은, 곧 '비존재'(nonbeing 혹은 those who are not)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 즉 '노바디'(nobody)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한경쟁의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노바디'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루저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야기되는 우울증은 결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유래하거나,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심리구조 하에서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개인적 차원의 상담치료나 약물치료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 그동안에도 우울증이나 중독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치유적 대안들은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다. 정신질환을 개인의 문제, 즉 유전적인 문제나 개인의 생활방식 문제로 간주하면서 이들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정상적인 감정표현 상태를 유지하고, 삶의 의지를 충전하여 '할 수 있다'는 심리상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향정신성 약물처방과 상담치료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악화를 막는데 더 유능한 시스템이다. 최근 등장한 철학적 상담치유 역시 실존주의적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 실존의 문제, 즉 죽음, 실업, 우울증, 이혼 등의 문제를 기존의 심리정신치료와는 다른 방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호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인지노동자들의 정신질환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접근방법을 내놓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정신질환의 문제를 기호자본주의 혹은 인지자본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살펴보면서, '이야기'와 해방의 해석학, 즉 '해석자들의 공동체'를 통해 기호자본주의 시대 '인지노동자들'(cognitariats)의 불안정한 정신건강과 우울증적 증세의 치유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Ⅱ. 기호자본주의 시대의 인지노동과 정신질환의 발생조건

우리 시대는 산업자본주의에서 소비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기호자본주의로 진화해 왔다. '기호자본주의'는 "물질적·비물질적 사물의 생산과정이 디지털 기호의 조합·재조합으로 대체가능하게 됨으로써, 기호작용(기호들의 발산)과 경제의 영역"[2]이 점점 더 빈번하게 교차하는 자본주의의 진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기호자본주의는 "(금융 상품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은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수단에 이르기까지) 본질적으로 기호적, 탈영토적 성격을 띤 기술-언어 장치의 창조와 상품화에 집중"하면서, 기호자본주의의 생산은 '탈산업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본주의적 축척과 생산적 노동이 더 이상 산업생산에 의존하지 않고, 모두 네트워크화된 과정으로 변형되고, 파편화되고, 재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가상공간에서의 기호 교환과 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또한 기호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주의 비판의 초점이 되었던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혹은 자본가/노동자의 이분법적 구별은 의미를 잃는다.

2) Franco [Bifo] Berardi, 정유리 역,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기호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정신노동의 정신병리』, 도서출판 난장, 2013a, 68쪽.

왜냐하면 모두가 “몰개성화 과정에 종속되[어], 그저 [필요에 따라] 재조합될 수 있는 단순한 기능들로 전락”[3]했기 때문이다. 이제 기호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가속화와 단순화의 인터페이스로 인해 디지털 회로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4]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Franco [Bifo] Berardi)에 따르면, 기호자본주의는 두 종류의 새로운 계층을 발생시켰다. 첫 번째로 “룸펜-부르주아지”가 새로운 지배 계층으로 등장했다. 룸펜 부르주아지는 근면, 검소, 절약 등의 가치를 따르던 근대 산업자본주의 부르주아지의 도덕과 윤리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역에 기반을 둔 특정 기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영토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 순간적 금융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한” 금융 자본가들이다. 산업 부르주아지가 “지칠 줄 모르는 노동에 대한 엄격한 헌신, 생산물의 소유에 대한 애착”을 기본으로 “특정 지역의 영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면, ‘룸펜-부르주아지’는 “영토, 공동체, 미래에 아무런 애정도 없는 약탈적 계급”이다. 그래서 이 약탈계급의 권력은 “기대심, 행복감, 우울증이라는 일련의 비물질적 환영에 기초”하며, 이것이 바로 “금융적 생산과 교환의 실체”이다.[5]

기호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계급은 인지노동자, 즉 ‘코그니타리아트’(cognitariat)인데, 이들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강조하기 위해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단어는 ‘불안정한’(precarious)이라는 뜻의 라틴어 ‘프레카리’(precari)에서 유래했으며, ‘불안정성’은 오늘날 기호자본주의 시대에 “종신 계약 없이 일하는 수백만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 불안정성이 우리 시대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모두 지워버리고

3) Franco [Bifo] Berardi, 위의 책, 68쪽.
4) Franco [Bifo] Berardi, 위의 책, 91쪽.
5) Franco [Bifo] Berardi, 위의 책, 70~71쪽.

있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시간이 "파편화되어 매 순간이 일체의 연속성을 결여한 채 끊임없이 분열된 상태로 모자이크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소통은 "점점 더 (그리고 거의 배타적으로) 전자 스크린을 매개로 한 정신없는 접속"으로 바뀌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공간들을 연결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공간이란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6]

공간이란 시간과 속도를 제약하는 한계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네트워크의 연결로 이 공간이 부과하는 물리적 한계가 실시간 접속으로 극복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공간의 제약을 느끼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공간 극복은 물론 기술 발전이 주는 혜택이다. 하지만 정보가 공간을 뛰어넘어 실시간으로 이동 가능하게 되면서, 정보이동속도의 가속화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미 "의식이 [정보나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능력, 기호나 사건을 정서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용량/능력"과 연관하여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7]

또한 기호자본주의 시대의 정보는 미디어 시스템이 전송하는 디지털 정보를 수신하는 인간의 '정신'과 그 영향을 주고받는 "인터페이스"로 구분된다. '수신기'의 역할을 하는 정신은 단지 신호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가공하고 창조한 다음에 새로운 송신과정을 작동시킴으로써, 미디어 환경이 끊임없이 진화하도록 만"드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디지털 송신방식이 기술적으로 발전, 진화하는데 반해, 인간 정신/두뇌는 기술 발전과 보조를 맞추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비록 인간 두뇌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이 정보의 리듬에 맞추어 변형되기는 하지만, 근원적으로 '송신기'(디지털 미디어 환경)와 '수신기'(정신/두뇌)는

6) Franco [Bifo] Berardi, 위의 책, 74~75쪽.
7) Franco [Bifo] Berardi, 위의 책, 76쪽.

서로 다른 패러다임, 서로 다른 작동방식을 갖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라르디는 사이버공간과 사이버시간의 '불일치'가 야기된다고 지적한다. '사이버공간'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무한히 가속화되지만, 정신/두뇌의 유기체적 구성에 기반한 '사이버시간'은 유기체의 신경계가 인식가능한 자연적 한계를 넘어 가속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수신기(정신/두뇌)의 사이버시간에서 사이버공간은 "번역 불가능한 것"이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정신질환의 근본 원인이다.[8]

산업자본주의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예시되는 것처럼, "물리적 에너지의 착취"에 기반을 두었다면, 기호자본주의는 "사회의 신경성 에너지의 예속"에 근거한다.[9] 즉, "신경 에너지의 착취"[10]를 통해 자본을 창출하는 '인지 노동'(cognitive labour)을 기반으로 한다.[11] 산업자본주의로부터 기호자본주의로의 이전은 사실 단절의 역사라기보다는, 산업자본주의로 인해 자본 축적과 생산과정이 탈영토화되면서, "추상적 기호의 생산과 교환"을 통해서도 자본 창출이 가능해진 기호자본주의로의 전환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12]

그래서 기호자본은 우리의 신경심리적 에너지, 인지, 감정적 하드웨어까지 모두 인터넷 생산성의 리듬에 따르도록 강요한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은 "그 속도를 무한히 올릴 수 있는 무한정한 영역"이

8) Franco [Bifo] Berardi, 위의 책, 77~78쪽.
9) Franco [Bifo] Berardi, 송섬별 역, 『죽음의 스펙터클: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범죄, 자살, 광기』, 반비, 2016, 70쪽.
10) Franco [Bifo] Berardi, 위의 책, 171쪽.
11) 그렇기 때문에 "인지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들도 있지만, Franco [Bifo] Berardi는 무엇보다도 자본은 "인지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착취자"라는 점 그리고 "지식, 창의성과 기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 자본이 아니라 인지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인지자본주의라는 용어보다는 '기호자본주의'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Franco [Bifo] Berardi, 『죽음의 스펙터클』, 113쪽).
12) Franco [Bifo] Berardi, 위의 책, 114쪽.

라서, “사회적 시장이 흡수할 수 없을 만큼 재화가 넘쳐나는” ‘과잉생산’을 만들어내고, 과잉생산된 제품을 남들보다 빨리, 더 많이 판매해야 한다. 이 신속한 판매를 위해 인터넷 생산라인은 인지노동자의 “감정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착취”하고, 이로 인해 두뇌의 신경체계는 붕괴, ‘과부하’를 경험하게 된다. 기호자본주의 시대에 우리의 정신건강이 매우 위험에 처하게 된 이유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우울한 현실 경험은 더욱 강화되고, 이 현실적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향정신성 약물류의 처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인지노동자의 삶의 세계는 이렇게 ‘프로작’(Prozac)[13]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14]

Ⅲ.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경쟁구조가 자아내는 우울증적 구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탈진과 소진을 반복하는 기호자본주의의 삶 속에서 과잉흥분, 공황, 주의력결핍장애, 난독증, 정보과부하, 신경회로의 포화 등을 포함하는 정신병리학적 현상이 증가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15] 오늘날 끊임없이 가속화되어가는 ‘디지털 송신기’와 생물학적 한계를 가진 ‘유기체(인간) 수신기’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이 격차와 불일치로 인해 “전자적 전송의 세계와 그 전송을 받아들이는 정신의 유기체적 세계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정신병리의 덫에 빠지게” 되었다.[16]

의사소통 방식이 문자주의적 체계로부터 디지털 전자 송수신 체계로

13) ‘프로작’(Prozac)은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제의 상품명으로, 1987년 미국 FDA 승인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항우울제이다.
14) Franco [Bifo] Berardi, *The Soul at Work: From Alienation to Autonomy*. Los Angeles, CA: Semiotext(e), pp.96~98.
15) Franco [Bifo] Berardi, 『죽음의 스펙터클』, 72쪽.
16) Franco [Bifo] Berardi,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78쪽.

전환되면서 정보전송 속도는 끊임없이 가속화되었고, 그에 따라 인간의 인지반응도 빨라지는 속도에 적응하기를 강요받고 있지만, 생물학적 유기체의 적응은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자의 간극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벌어지고 악화된다. 유기체의 정보수신은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고, 결국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그저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정보교환의 가속화로 인한 신경계의 과부하는 간과되고 있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자극과 신경자극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한편으로는 관계나 다른 사회적 활동에 투자되어야 할 인지노동자의 시간을 빼앗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한 '돈(자본)'을 쟁취하기 위한 총동원 전쟁을 부추긴다. 이 총동원 상태는 결국 인지노동자에게 "극도의 피로, 정신적 소진, 우울증, 공황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 고통"을 일으킨다. 여기에 더해 신자유주의 문화가 우리의 두뇌 속에 '무한경쟁',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코드를 주입하면서, "경제적 경쟁과 정보자극의 디지털적 강화"가 서로 결합되어 병리적 증상들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신경계의 과부하를 끊임없이 재촉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구히 감전사의 상태"에 빠뜨린다.[17]

이로 인해 야기되는 "외로움, 실존적 고통, 그에 따른 분노, 공황, 우울증"[18]은 무한경쟁 시대의 특징이 되었다. 인구집단의 주의력이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공황적 붕괴"가 시작되고, 산업자본주의의 무한성장이 금융자본주의의 가상적 무한성장을 거쳐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여전히 무한성장 시대의 조증(maniac)에 사로잡혀있는 우리의 신경이 '스

17) Franco [Bifo] Berardi, 위의 책, 78~83쪽.
18) Franco [Bifo] Berardi, 위의 책, 12쪽.

펙터클'을 추구하면서 출구를 찾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현실에서 '온라인 다중접속 게임'(MMORPG)은 상처받고 좌절한 청년 세대에게 해방의 출구가 된다. 현실에서 그는 대졸자이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배달일을 하는 하류인생이지만, 적어도 가상공간 게임 속에서 그는 세계를 구하는 영웅의 무리에 속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꿈을 꾸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온라인 게임에서 느끼는 최소한의 흥분과 기대는 살아야 할 동기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 세대의 많은 이들이 온라인 다중접속 게임이라는 가상세계로 이주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디지털 가상세계가 "집"이고, 현실의 지구는 필요에 따라 "가끔 들리는 곳"에 불과하다.[19]

또한 좌절, 상처, 무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스펙터클한 행위"가 자살 의도를 지닌 총기난사 다중살인사건 등으로 표출되는 것은 "무의미를 향해 이행하는 오늘날 사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며, 이러한 시도가 지난 "15년 사이 부쩍 잦아졌다"고 베라르디는 분석한다. 많은 총기난사범들이 방송국이나 유튜브에 자신의 총기학살행위를 예고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이런 행위들이 "스펙터클의 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준다.[20] 2007년 버지니아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에서 총기학살극을 벌인 조승희도 "학살극을 벌이는 와중에 NBC 뉴스 측에 1800단어로 이루어진 선언문과 43장의 사진, 25분 분량의 비디오테이프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러한 스펙터클한 총기학살자들의 목표는 "스펙터클의 거울을 부수"어, 현실과 상상 간의 경계를 없애고, 그 스펙터클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펙터클이 삶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되기"를 원한다.[21]

---

19) Jonathan Gottschall, 노승영 역,『스토리텔링 애니멀 - 인간은 왜 그토록 이야기에 빠져드는가』, 민음사, 2014, 233~236쪽.
20) Franco [Bifo] Berardi, 『죽음의 스펙터클』, 43쪽.
21) Franco [Bifo] Berardi, 위의 책, 58~60쪽.

이렇게 과포화된 정보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심을 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처리해야 할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더이상 입력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할” 시간도 없고, 주의를 집중하거나 관심을 쏟을 에너지와 시간도 없다. 우리의 집중력은 이미 과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정보처리와 의사결정(또한 정치적·경제적 결정)[이] 점점 더 자동화될 필요”가 생긴다.[22] 이렇게 우리는 점점 더 무관심하게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따르게 되고, 그에 따라 냉혹한 결정을 처리하는 존재가 되어간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진리로 여겨지는 오늘날의 경쟁사회에서 관심과 흥미는 사치일 뿐이다. 그런 것들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순간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래서 점점 더 자동화시스템의 노예처럼 무의식적으로 순식간에 결정을 내리게 되고, 쏟아져 나오는 결정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버겁다. 그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과부하 상태가 지속될 경우, 현실을 벗어나 가상세계로 이주하거나 의미를 상실한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꿈꾸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자신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인간 존재의 우울증적 구조의 실상이다.

Ⅳ. 사회적 질환의 치유로서의 ‘이야기’와 ‘해석자들의 공동체’

인간은 본래 “스토리텔링 애니멀” 즉, “호모 픽투스(Homo fictus, 이야기하는 인간)”로,[23] 이야기를 닮은 온갖 활동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24] 이야기를 접하는 매체가 활자에서 영상으로 바뀌었어도, 기본적으로

22) Franco [Bifo] Berardi,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80쪽.
23) Jonathan Gottschall, 『스토리텔링 애니멀』, 14쪽.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늘날 책과 같은 활자매체보다 영상매체에 더 쉽게 빠지고, 더 깊이 몰입하는 이유도 영화나 드라마가 결국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고의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이야기이며, 개인이건 집단이건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신화'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단군신화'가 그렇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 '단군신화'가 역사적 사실이나 실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화가 허구임을 알면서도, 그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민족의 기원을 공유하고,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1. 이야기하는 인간 - 기호를 의미로 엮어내다

우리는 왜 그렇게 이야기에 몰두하는 것일까? 조나단 갓셜(Jonathan Gottschall)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이야기를 도입한다. 아주 오랜 옛날 일보다는 잡담과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야기족"과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면서 잡담을 삼가는 "실용족"이 인접한 지역에서 식량과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이 두 부족의 경쟁에서 승자는 누구였을까? 갓셜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야기족이다.[25] 이야기족이 실용족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관한 역사적 증거나 자세한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상적인 실용족은 멸종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야기를 좋아하고 몰입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이야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4) Jonathan Gottschall, 위의 책, 27쪽.
25) Jonathan Gottschall, 위의 책, 40쪽.

이야기의 진화론적 기원에 대해 "자연선택이 아니라 성 선택"이다, 이야기는 "인지적 놀이"와 같다, 이야기는 "정보와 대리 경험을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또는 "사람들을 공통의 가치로 묶어주는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설명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야기는 "적어도 생물학적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이다. 갓셜은 오히려 이야기가 "코카인과 같은 마약"의 기능, 즉 "지루하고 가혹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마약"의 기능을 가졌다고 주장한다.[26]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는 뇌 진화과정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식을 지닌 유기체가 벌어진 사건을 자기중심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자기 자신과 삶의 의미, 그리고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은 이기적 유전자의 알고리즘이 의도한 진화의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의식적 존재로서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며 살아간다.

또한 이야기는 "간주체적 존재들"(intersubjective entities)을 만들어냄으로써, 대규모의 사람들이 협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간주체적 존재들은 주관적 실재도 아니고 객관적 실재도 아닌 "실재의 제삼의 차원"(a third level of reality)에 존재하면서, "개별 인간의 믿음이나 감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돈은 그 자체로 어떤 객관적 가치를 갖지는 않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 가치를 믿고 공유하는 한, 우리는 돈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다. 여기서 돈이 바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적 구조를 통해 실존하는 '간주체적 존재'이다. 사실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실재들은 거의 모두 이 간주체적 존재들에 속한다. 민족, 정부, 민주주의, 정의, 성, 기업, 신 등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이야기적 사유구조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이 간주체적 존재들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의 네트워크 속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26) Jonathan Gottschall, 위의 책, 50~51쪽.

존재들이다. 다시 말해서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된 이야기들의 네트워크를 함께 엮어갈 때 창조”된다.[27]

하지만 이 의미의 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의미의 망이 해체되고, 새로운 의미의 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의미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기존의 의미개념을 해체하고 새롭게 재해석되어야만, 의미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의미의 망은 해체되어야 하고, 이것을 통해 이야기의 구조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오직 인간들만이 의미의 간주체적 망을 엮을 수”[28] 있다. 이것 때문에 다른 파충류나 포유류보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사피엔스가 자연선택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다. 인간 이외의 포유류, 영장류들은 언어라는 미디어를 통해 간주체적 존재들을 창출하고 의미의 망으로 엮어서, 다수의 많은 개체가 협력하는 구조와 조직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정보과잉 속에서 의미를 상실하다

이렇게 기호를 의미로 엮어 이야기를 만들어온 인간들이 오늘날에는 ‘의미 상실’을 빈번히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인지노동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으며, 그들이 경험하는 의미 상실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기호가 부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호가 과잉되고 넘쳐나는 네트워크 사회의 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가상공간에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 때문에

27) Yuval Noah Harari,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London: Harvil Secker, 2016, p.144~146.
28) Ibid., p.149.

오히려 이 정보들을 의미있는 구조로 엮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기호자본주의 시대에 인간은 그래서 광고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 선택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획득하게 된다.

오늘날 광고가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후원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정보나 '심기를 거스르는' 정보를 억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광고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내용을 편집"하는 것이다.[29] 이렇게 이미 광고의 자리를 선점한 거대자본들은 근대 인간해방의 기치를 자본주의적으로 각색하여 '감성'이라는 인간적 코드에 사뿐히 얹어놓았다. 그리고 이 거대자본이 엮어낸 감성적 메시지로 가득한 기호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중파, 종편, 인터넷, SNS 상의 '클릭 수'가 곧 자본이 되고, 삶의 의미마저도 이러한 가상공간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었다.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니, 너는 다시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발산하는 광고 메시지들은 승자독식과 무한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의 음험한 속내를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달콤하고 살벌한 메시지 안에 희망의 씨앗이 있다고 최면을 걸고 있으며, 그 희망은 바로 소비력과 구매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이것을 획득할 기회와 능력이 있다고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동시에 그 욕망의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성취 불가능한 '행복'이라는 목표 대신에 충분한 대리만족감을 줄 수 있는 보완물을 구매하고 소비하도록 충동질한다. 그리고 이것은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그들은 단지 탈출이나 초월, 또는 고통 완화를 위해서만 약물에 손을 대는 게 아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에 손을 대는 것이다.

29) Jean Kilbourne, 한진영 역, 『부드럽게 여성을 죽이는 법: 광고, 중독 그리고 페미니즘, 광고는 어떻게 생각과 감정을 조율하는가』, 갈라파고스, 2018, 56쪽.

이처럼 중독은 '저기에 있는' 뭔가가 즉각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로 시작되고, 광고는 모두 이런 헛된 희망을 이용한다.[30]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경우, 대부분은 가상공간에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그러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이제는 그 대체제나 보완물이 마치 진짜인 양 착각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가짜 축제를 벌인다. 드넓은 사이버 가상공간은 우리의 "욕구를 무제한 충족시켜주겠다고 약속하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약속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다."[31]

이런 역설적이고 도착적인 시대 상황을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우리가 "실재계의 사막"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표현한다. 실재계의 사막이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우리의 표현이 과잉되게 표출되면서, 우리의 현실이 "과용된 실재"로 변모한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의 지배적 병리는 "억압의 산물"이나 "억압의 병리적 결과가 아니라, 과잉표현에 의한 병리적 영향"이며, 병리의 근원은 "은폐가 아니라 하이퍼비전, 즉 가시성의 과잉, 정보영역의 폭발적 급증, 정보-신경자극의 과부하"라는 것이다. 이런 정신병리들은 "그 자체로 유기체가 겪고 있는 고통, 불쾌함, 주변화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유기체가 자신에게 투입된 정보를 처리하는 다른 방식을 나타내기도 한다."[32] 그러므로 이 기호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진정한 치유란, 우선 소비 욕망을 추동하며 승자독식의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구조를 정당화하는 의미구조를 해체하고, 대안적 의미구성의 기호학을 구성한 뒤, 마침내 이 구조가 만들어낸 정신

30) 위의 책, 265쪽.
31) Bert te Wildt, 박성원 역, 『디지털 중독자들 - 인터넷 의존증이 바꿔 놓은 세상』, 율리시즈, 2017, 41쪽.
32) Franco [Bifo] Berardi,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189~191쪽.

질환적 현상을 철학적 해석학으로 관통하는 일이다.

3. 의미상실로 인해 사회적 질환이 발생하다

양극성 장애(조울증) 중증환자이자 철학자인 로버트 코링턴(Robert S. Corrington)은 조울증 환자가 조증 상태에서 겪는 '기호적 과잉상태'와 우울증 상태에서 겪는 '기호의 부재상태'를 찰스 퍼어스(Charles S. Peirce)의 기호학에 근거하여 '해석자들의 공동체'라는 의미구조로 설명하면서,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해석담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퍼어스는 기호현상(semiosis)이 '기호-대상'의 이가적(dyadic) 구조가 아니라, '기호-대상-해석체'의 삼가적(triadic)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인간은 언제나 기호와 대상의 관계를 '해석'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호자본주의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시스템도 하나의 해석 틀이며,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삶이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고, 유기체인 우리도 자연선택에 종속되어 있다'는 해석을 이야기적 구조를 통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기호자본주의가 창출하는 무수한 기호들의 범람 속에서 우리는 기호의 과잉과 부재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기호 과잉'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세계와 대상으로 이끌어 줄 기호를 상실함으로써 발생하는 '무의미성'이 바로 우리 시대 정신질환의 구조적 조건이다. 우리를 대상으로 이끌어줄 기호를 분별하는 일은 본래 '해석체'(interpretant)의 몫이다. 그러나 해석체를 올바르게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그의 세계는 기호가 아닌 기호로 읽히지 못한 소음이나 쓰레기로 가득 차 버리게 된다. 이렇게 기호들을 의미로 해석하진 못한, 그래서 "긍정적 환상을 잃어"버린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을 "평균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평가"[33]한다. 그래서 코링

턴은 조울증 환자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대상들에 뿌리를 두고, 그리고 신뢰할만한 해석체들을 생산해내는 기호들"[34]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사실 우리의 뇌는 대상이나 세계를 직접 접촉하지 못한다. 감각기관이 아닌 뇌는 그래서 외부 실재와 접촉하기 위해 '몸'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즉 몸의 감각을 매개로 기호를 생산하여 뇌에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 뇌는 세계와 대상을 구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자 칸트는 우리는 '물 자체'(Ding an sich)에 이를 수 없다고 일찍이 선포한 바 있다.

이렇게 몸을 통해 만들어진 생물학적 기호들은 대개 무의식적이거나 전의식적이다. 그래서 의식을 통해 사물과 세계의 관계, 그리고 그 의미를 엮어 이해하는 인간은 이 기호들을 파악하기 위해 '해석체'(interpretant)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해석체'는 해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자. 예를 들어, 조울증 환자 대부분은 자신의 상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몸이 어떤 기호를 발산해도, 그 기호와 연결할 수 있는 '해석체'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해석체를 찾는 적절한 방법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다. 의사는 자신의 의학지식을 기반으로 기호들을 읽어낼 수 있는 올바른 해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들마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가지듯, '기호-대상-해석체의 관계' 역시 확고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검토와 비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까닭에 코링턴은 '해석자들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3) Jonathan Gottschall, 『스토리텔링 애니멀』, 212쪽.
34) Robert S. Corrington, 『바람의 말을 타고』, 161쪽.

4. 치유적 공동체로서 '해석자들의 공동체'

'해석자들의 공동체'는 퍼어스의 탐구 공동체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앎이 획득되거나 상실되는 자리"[35]이다. 본래 퍼어스가 생각한 이상적인 공동체는 "과학 공동체"였다. 과학 공동체는 "대상들과 사건들의 기호 구조들에 대한 자유로운 탐구가 이루어지는 자기-교정적인(self-corrective)"[36]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링턴은 해석자들의 공동체가 획일적으로 과학 공동체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퍼어스가 "한 종류의 공동체를 모든 종류의 공동체를 위한 규범적 공동체로 만드는 잘못을 범하였다"[37]고 비판한다. 코링턴에게 중요했던 것은 "해석자들이 기호들의 공통군에 새롭고 풍성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유'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석자들의 공동체가 해석적 다양성과 풍성함을 가지고 있을 때, 공동체는 자기-교정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공동체가 기호들을 이야기의 구조로 엮어낼 수 있을 때에야 기호는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호들은 살아있는 공동체 밖에서는 온전히 파악되지 않기"[38] 때문이다. 아울러 다양한 해석들을 인정할 때, "공동체 내 작은 소수를 대변할 수"[39] 있는 여지도 생겨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기호자본주의적 구조로 인해 정신적 질병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구조하에서 결국에는 패자가 될 운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보내는 기호를 읽어낼 해석체를 결여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의 대안적 가능성을

35) Robert S. Corrington,『자연주의적 성서해석학과 기호학』, 59쪽.
36) Robert S. Corrington, 위의 책, 64쪽.
37) Robert S. Corrington, 위의 책, 127쪽.
38) Robert S. Corrington, 위의 책, 52쪽.
39) Robert S. Corrington, 위의 책, 146~148쪽.

보여줄 이야기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해방적 이야기, 즉 삶의 전일성을 회복시켜 줄 이야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코링턴은 '조울증-천재' 개념을 통해 종(種)이 창조적 일탈을 감행하게 되고, 이들의 성과가 충분히 의미있을 경우, 그 집단은 창조적 전진을 이루게 된다고 말한다.[40] 이는 조울증 환자가 천재라는 말이 아니다.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것은 개인에게 극심한 고통과 소외를 가져오며, 이는 자아에게 무능과 무기력의 정서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의식을 매개로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는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를 무기력한 '실패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자살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울증 환자는 자살 충동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의 파멸을 택하는 대신, 현실을 뒤집어 망상의 세계로 도피하여 자신을 세계의 주인공으로 선포하거나, 예술적 영감으로 일탈을 감행하면서 대안적 이야기를 창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소설가가 조울증과 같은 양극성 장애를 앓을 확률은 "일반인의 10배", 시인은 "40배"나 되며, 저명한 시인의 87%, 저명한 소설가의 77%가 정신 장애를 앓았다고 한다.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보다 더 일탈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야기'가 일탈을 통해 의미를 추출해내는 것이다. 만일 이야기에 이러한 일탈적 요소가 없다면, 그 이야기는 너무 평범해서 이야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41]

이야기하는 마음은 불확실성, 임의성, 우연의 일치에 질색한다. 이야기

40) Robert S. Corrington, 『바람의 말을 타고』, 208쪽.
41) Jonathan Gottschall, 『스토리텔링 애니멀』, 124~126쪽.

하는 마음은 의미 중독자이다. 이야기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의미있는 패턴을 찾아내지 못하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려 든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는 마음은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는 진짜 이야기를, 그럴 수 없을 때는 가짜 이야기를 제조하는 공장이다.[42]

코링턴이 '조울증-천재'에서 강조하는 바는 "천재가 만든 작품들은 치유를 위한 시도"이고, 그들에게는 "작업이 바로 약"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의미있다'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병과 "더불어 그리고 그 질병을 통하여" 삶을 의미있게 엮어간다. 그리고 천재의 정신 안에 있는 양가적 이중성, 즉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그에 대한] 비하적 외면(혹은 아브젝시옹, abjection)"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 될수록, 천재의 정신은 더욱더 "전일성"(wholeness)을 향한 충동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43] 예술적 작업을 통해 그 전일성의 지평에 도달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천재'들이 자신의 탁월함이나 우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서 자신이 의미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그 인정이 망상적 퇴행으로 추락할 경우,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을 경멸하며 루저에 대한 혐오감을 발산하는 악마적 인물이 되겠지만, 자신의 삶과 질병의 의미를 공동체와 공생하는 자리에서 찾는다면, 그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창조적 일탈을 통해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할 창조적 성과를 만들어내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기호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의미 상실을 경험하는 정신질환자들은 공동체 안으로 포섭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의미 획득 과정에

42) Jonathan Gottschall, 위의 책, 133쪽.
43) Robert S. Corrington, 『바람의 말을 타고』, 209~210쪽.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해석자들은 해석과정에 기여하는 의지적 태도, 즉 "충실성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 알랭 바디우는 이것을 "선언(진리)에의 충실성"이라 불렀는데,[44] 이 충실성은 "해석자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해석 방향에 자신의 의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사회생활의 주요 기술을 연습"하기 때문이다.[45] 그러므로 "충실성이 없다면 공동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해석들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46]

그러나 이렇게 적합한 해석공동체를 통해 해석하는 주체가 이 기호의 분기들을 의미있게 해석하지 못할 때, '무'(nothingness)가 엄습하기도 한다. 물론 해석자들의 공동체가 유일무이한 진리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퍼어스는 (해석)공동체가 "우리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정직한 것과 거짓된 것 사이를 구별하기 위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47] '해석자들의 공동체'가 무한히 분기하는 자연의 기호작용을 통해 무한히 다양한 해석들을 발생시키지만, 시대와 상황에 적합한 의미구조를 체현해가는 것은, 결국 '해석자들의 공동체'가 어떤 판단기준을 통해 '유의미한 해석과 무의미한 해석을 걸러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정신건강은 단지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과 상담을 통해 개인의 고장나고 비뚤어진 내면을 바로 잡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다. 반면에 그러한 내면의 뒤틀림과 왜곡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므로 산업노동자보다 고학력 하이테크 인지노동자들이 더 많은 기호자본주의 시대에는 정신건강을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

44) Alain Badiou, 현성환 역, 『사도 바울 - 제국에 맞서는 보편주의 윤리를 찾아서』, 새물결, 2008, 32쪽.
45) Jonathan Gottschall, 『스토리텔링 애니멀』, 83~84쪽.
46) Robert Korrington, 『자연주의적 성서해석학과 기호학』, 84~85쪽.
47) Robert Korrington, 위의 책, 59쪽.

‘사회적 차원’에서 조망하고, 이를 단지 개인상담을 통한 내면의 치유가 아니라, 충실한 해석자들이 모인 ‘해석자들의 공동체’를 통해 공동의 탈주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V. 이야기를 통한 의미 회복 - ‘종교적인 것’(the religious)의 창출

코링턴은 “조울증 환자들은 초일상적인 수단을 통해 궁극적 의미의 영역을 어쩔 수 없이 탐구하게 된다”[48]고 말한다. ‘의미’란 결국 궁극적인 것의 영역으로부터 유래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기호자본주의로 인한 무의미성의 시대에 스스로를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우울증 환자가 의미를 회복하려면, 궁극적인 것의 영역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체로 영웅적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주인공의 영웅성, 천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매우 끔찍한 요소들로 가득하게 된다. 예를 들면, “협박, 죽음, 절망, 불안, ‘질풍노도’ 등” 우리에게 불쾌감을 자아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의 세계는 “대체로 무시무시한 세계”로 그려진다. 그래서 이야기의 본질은 “갈등”, “지옥”, “말썽”에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이야기는 “전개, 위기, 해결의 패턴”을 도식적으로 전개한다.[49]

이 패턴은 일반적으로 “인간 조건에 관한 거대한 곤경에 초점”을 두고, “섹스와 사랑, 죽음의 공포와 삶의 도전,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예속에서 벗어나려는 욕망 곧 권력”을 주제로 삼는다.[50] 이렇게 이야기 속에

48) Robert S. Corrington, 『바람의 말을 타고』, 303쪽.
49) Jonathan Gttschall, 『스토리텔링 애니멀』, 75~80쪽.

서 '주인공이 영웅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한다'는 패턴은, 우리가 현실에서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인공처럼 그것을 이겨낼 것이라는 희망의 차원을 갖는다. 물론 이것은 '근거 없는 희망'이며, 그저 '삶에 대한 긍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 종교(religion)보다 더 근원적인 '종교적인 것'(the religious), 조나단 갓셜의 표현으로는 "긍정적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 집단이나 사회에 의미구조를 부여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종교의 역할과 기능이기 때문이다. 종교는 종교의 이야기 속에 그 사회가 지켜야 할 도덕과 가치를 담아 전달했고, 이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는 "공통의 가치를 강화하고, 공통의 문화라는 매듭을 단단히 매어 사회를 결속하는 고대의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51]

그러나 '종교적인 것'은 기존의 공동체를 지키고 보전하며 안정화시키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기존 공동체를 변혁하는 힘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을 담은 이야기는 언제나 '세계 변혁적'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 공동체는 초대교회 시절 예배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선포하면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불렀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회람되던 시대는 로마제국이 지중해 지역의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 내실을 다져가던 시기였다. 제국의 질서는 황제를 정점으로 귀족, 평민, 노예로 구성된 신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당연히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었다. 남자는 시민권을 지닌 '시민'

50) Jonathan Gttschall, 위의 책, 81~82쪽.
51) Jonathan Gottschall, 위의 책, 170쪽.

이지만, 같은 귀족이라도 여성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의 인간존재로 간주되지 못했던 시절이다. 그런데 소수자들의 종교인 기독교가 제국의 신분질서를 위협하는 '평등 공동체' 이야기를 지하에서 유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가 로마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이유이다. 그러나 그들의 '평등 이야기'는 지중해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결국 그들이 주장하던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어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를 통해 치료하는 일은 사실 낯선 일이 아니다. 기독교의 성서중 하나인 「고린도전서」는 노바디를 위한 치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있는 자'(those who are, ***ta onta***)와 '없는 자'(those who are not, ***ta me onta***)라는 표현이 등장한다.[52] '있는 자'란 본래 그저 존재한다는 중성적 표현이지만, 일상에서 이것은 '경제적 능력을 소유한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없는 자'란 경제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이, 그래서 '비존재가 된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세상의 관점에서 "사소하고 비천한 자들"(the little ones) 혹은 "세상의 아무것도 아닌 자들"(the nothings and nobodies of the world)을 가리킨다.[53] 기독교의 신약성서가 기록되던 시절, 즉 로마제국 시절에도 세상은 이미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어 인식하고 있었다. '없는 자들'이란 말 그대로 없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소위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nobody)을 가리켰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없는 자들'을 선택하여, '있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신다(to reduce to nothing those who are [***ta onta***])고 선포했던 것이다.

---

52)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ta me onta*)**을 택하사, **있는 것들(*ta onta*)**을 폐하려 하시나니"(개역개정) (저자 강조)

53)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p.45.

코링턴이 조울증 환자를 '조울증-천재'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면서, 그들은 '그 질병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병과 더불어' 그리고 '그 병을 통해서' 인류의 위대한 성과들을 일구어냈다는 해석을 시도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이야기에는 세계를 변혁하는 힘이 담겨 있고, 종교공동체는 대표적인 이야기공동체 중 하나다. 물론 그 변혁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해석자들의 공동체"가 중요하다.

VI. 나가는 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구 근대가 낳았던 인간중심주의는 인간 능력에 대한 위계화, 상대적 특권화를 통해 우리 시대의 모든 타자(여성, 자연, 사물, 기계, 사이보그, 그 외 타자로서의 모든 소수자)를 향한 소외, 폭력, 착취에 잘못된 철학적 전제를 제공해 왔다. 또한 근대 이후 정착된 '정신과 물질', '보편과 특수'의 이분법적 사고 안에서 독립적이고 분리된 개체로서의 개인을 사유와 성찰의 기본단위로 삼아왔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떠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도 언제나 개별 증상과 질환을 중심으로 치유하는 의학적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신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관계적으로 뒤얽혀 있으며, '브라질 아마존 밀림에 사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의 허리케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캐서린 말라부(Catherine Malabou)[54]는 '파괴적 가소성' 개념에서 삶의 과정을 어떤

54) Catherine Malabou, *The Ontology of the Accident: An Essay on Destructive Plasticity*, translated by Carolyn Shread, Cambridge, UK; Malden, MA: Polity, 2012.

이상적인 본래 상태로의 복귀 또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가소성이란, 오히려 "강도짓"이 난무하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 있더라도, 혹은 우리의 삶을 절단시키고 부수고 파괴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조건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응하면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새로운 재구성을 도모하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생명/삶은 '과정'이며, 인간-됨(being-human)은 '인간-되기'(becoming-human)가 되어야 한다고 말라부는 역설한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인간역량'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우리의 생명적 저항과 연대를 통해 구현되어야 하고, '해석자들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투쟁의 노력을 함께 엮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기호자본주의가 창출하는 디지털 기호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기호의 과잉과 부재를 동시에 경험하고, '기호 과잉'으로 인해 오히려 기호의 의미를 상실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무의미성과 우울이라는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각자도생과 무한경쟁, 비정규직 등으로 인해 소속감은 점점 사라지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디지털 가상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전부인 오늘날, 극심한 소외감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55]

기호자본주의 시대 인지노동자들의 이러한 '정신질환'은, 정신분석학이나 상담심리학에서 말하듯이, 단지 개인의 트라우마나 관계성 혹은 유전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를 구성하는 사회구조, 물적 토대들과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의 극복은 단지 약물과 상담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점점 더 증

55) 유성호,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21세기북스, 2019, 178쪽.

가하는 정신질환의 심각성은 우리에게 사태를 보다 중층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까지의 사유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고하고, 새로운 개념을 창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코링턴은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보편공동체로서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해석자들의 공동체의 한 예로서 '교회공동체'를 제시한다. 물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공동체는 그리 환영받는 집단이 아니다. 특히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공동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그러나 교회공동체는 '하느님 나라'라는 보편공동체에 대한 '기억'과 '기대'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보편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이며,[56] 제도종교로서가 아닌 '종교적인 것'(the religious)을 담지한 변혁적 공동체인 교회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영은 "기독교의 사회적 실천을 촉진하도록 기능하는 행위작인으로서의 영(the agent spirit)"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영'은 "해석의 영으로서 해석적 합치를 향하여 공동체를 은밀히 움직여나가는"[57] 영으로, 정보와 기호가 넘쳐나는 기호자본주의 공동체 안에서 해석체로 기능하면서 변혁적 의미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코링턴이 제안하는 '해석자들의 공동체'를 통한 탈주는 개별 단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른 존재와 더불어 맺고 있는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포함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관계성과 연대성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호자본주의 시대가 가져올 다양한 미래적 억압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되기'의 과정을 대안적으로 모색해 나아갈 수 있을지를 궁리해야 한다. '인간됨'(being-human)이란 결코

56) Robert S. Corrington,『자연주의적 성서해석학과 기호학』, 67쪽.
57) Robert S. Corrington, 위의 책, 90쪽.

경제적 지표만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복잡한 삶의 중층성과 다양성을 담지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는 언제나, 캐서린 켈러(Catherine Keller)의 말처럼, "얽히고-엉켜있는 정의"(sticky justice)[58]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치유공동체로서의 '해석자들의 공동체'를 통해 그동안 인간 대 비인간이라는 이분법적 틀 안에서 소외되었던 소수자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사회의 시스템들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58) Catherine Keller, *On the Mystery: Discerning Divinity in Proces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참고문헌|

김원영, 『실격 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사계절, 2018.

유성호,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21세기북스, 2019.

조주현, 「실천이론에서 본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 과학적 실천이론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STS)의 접점」, 『한국기술과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7.

한국문화신학회 편, 『소수자의 신학』, 동연, 2017.

Alain Badiou, 현성환 역, 『사도 바울 - 제국에 맞서는 보편주의 윤리를 찾아서』, 새물결, 2008.

Bert te Wildt, 박성원 역, 『디지털 중독자들 - 인터넷 의존증이 바꿔 놓은 세상』, 율리시즈, 2017.

Franco [Bifo] Berardi, 송섬별 역, 『죽음의 스펙터클: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범죄, 자살, 광기』, 반비, 2016.

_____, 정유리 역,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기호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정신노동의 정신병리』, 도서출판 난장, 2013a.

_____, 강서진 역,『미래 이후』, 도서출판 난장, 2013b.

Jean Kilbourne, 한진영 역, 『부드럽게 여성을 죽이는 법: 광고, 중독 그리고 페미니즘, 광고는 어떻게 생각과 감정을 조율하는가』, 갈라파고스, 2018.

Jonathan Gottschall, 노승영 역, 『스토리텔링 애니멀 - 인간은 왜 그토록 이야기에 빠져드는가』, 민음사, 2014.

Robert S. Corrington, 박일준 역, 『자연주의적 성서해석학과 기호학 - 해석자들의 공동체』, 동연, 2017.

_____, 박일준 역, 『미국철학적 전통에서 본 자연주의적 성서해

석학과 기호학: 해석자들의 공동체』, 동연, 2018a.

_____, 박일준 역, 『바람의 말을 타고 — 조울증의 철학: 조울증과 전일성의 추구』, 동연, 2018b.

Catherine Keller, *On the Mystery: Discerning Divinity in Proces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Catherine Malabou, *The Ontology of the Accident: An Essay on Destructive Plasticity*, translated by Carolyn Shread, Cambridge, UK; Malden, MA: Polity, 2012.

Franco [Bifo] Berardi, *The Soul at Work: From Alienation to Autonomy*. Los Angeles, CA: Semiotext(e), 2009.

Gary Marcus, *Kluge: The Haphazard Evolution of the Human Mind*, Boston: Mariner Books, 2008.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Yuval Noah Harari,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London: Harvil Secker, 2016.

<Abstract>

Review of Mental Diseases as Social Diseases and an Exploration of a Possibility of Curing Them with Social Construction of Story-telling - Concerning on "The Community of Interpreters"

Lee, Eun-kyoung

Human Beings are story-telling animals, who weave stories by imposing meanings upon signs. However, as one has entered into the semiocapitalism, in which everything is connected through digital networks, and in which digitalized information overflows everywhere, labor today has turned into cognitive labor, which produces the capital through the production and exchange of abstract digital signs. As cognitive labour on virtual digital networks directly exploits our mental and emotional energy in a way that the system of infinite competition and winner-take-all encourages us to try harder, the problem of capitalism has changed from the alienation from our works to the elimination from competition. This semiocapitalist structure has snared us with a trap, in which nobody can win, and made us feel impotent. However, one cannot accept this, especially in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in which one mistake or one failure cannot be tolerated. Instead, we seek for an exit to release the feelings of despair and anger, which has accumulated within us without any recognition of them. In so doing, our overloaded central nerve system reaches its limitation, and it is no wonder that our society is full of mental diseases like bipolar disorder, schizophrenia, depression and so on.

However, any treatment or cure of mental diseases today only focuses upon the broken and distorted inside of the mentally ill patients, prescribing anti-depressants and mood-stabilizing drugs like prozac and lithium and overlooking the social structure, which has generated such twisted and perverted symptoms in the minds. Can one overcome just with the treatment and cure of the personal inner psychology the mental diseases, which derive from our social structure of infinite competition and winner-takes-all? Are they already social one rather than personal one? Can one imagine social cure and emancipation by constructing a social narrative, in which one can live with one's failure and suffering, instead of the cultural story-telling of cold-blooded competition, in which only the winner survives?

With such problematics, this paper examines the widespread issue today of mental diseases in the context of semiocapitalism or cognitive capitalism and explores a possibility of the cure of precarious and depressive mental health of cognitive laborers with story-telling and emancipatory hermeneutics through the community of interpreters.

Key words : Semiocapitalism, Mental Disease, Story-telling, the community of interpreters,

and cognitive laborer

이은경
감리교신학대학교 객원교수
(03745)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6 감리교신학대학교
전자우편: jjiggu1990@naver.com

이 논문은 2020년 9월 7일 투고되어 2020년 10월 9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0년 10월 16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